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 요셉의원



격 | 월 | 간

2020년 11월 제 **113**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http://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조해봉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셉의원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josephclinic@daum.net

## ‘코로나19’가 던져준 쪽방촌 진료의 과제 찾아가는 서비스로 환자와의 소통과 시설간 연대 강화



점심 급식을 받기 위해 영등포역 앞 옆길  
을 따라 길게 늘어선 사람들. 사진 오른쪽  
은 10월 29일 꽃동네대학교 주최 국제학술  
대회 주제발표에서 본원 운영 현황과 과제  
에 대해 강연하는 신완식 의무원장. 왼쪽은  
본원에서 실시하는 쪽방나눔 모습.



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 수가 11월 18일 현재 300명을  
웃돌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환자 발생이 파도를  
타듯 완만과 급등을 반복하면서 많은 이들이 ‘코로나 시  
대’에 적응해 가는 듯 보인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려고 하  
며, 회사나 학교 등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업무  
처리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던져준 여파는 엄청나다. 일  
자리와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고, 각종 사회적 모임 중단  
과 함께 학교가 폐쇄되는 등 사회 전반과 가정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피부에 와 닿는 커다란 변화는 심  
리적,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

본원 신완식 의무원장은 지난 10월 29일 꽃동네대학교  
가 개교 22주년 기념으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카리타



코로나19의 과제

1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4



쪽방촌 향기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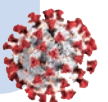
병원 소식

7



후원의 손길

9



스 정신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주제 강연에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합세해 우리 사회가 ‘코로나 블루’에서 ‘코로나 레드’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진단했다.



본원 신완식 의무원장이 꽃동네대학교 주치학술대회에서 발표를 마치고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 쪽방촌 환자도 ‘건강 염려증’

이런 여러 상황은 노숙인을 비롯한 쪽방촌 사람들에게 또 그대로 반영된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며 누구나 ‘나도 감염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 이런 두려움은 ‘건강 염려증’으로 이어져 몸의 어떤 부분에 약간이라도 이상이 나타나면 불안하고 때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신 의무원장은 “어느 날 환자 한 분이 옷통을 들어올리며 ‘원장님, 이거 보세요, 몸의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요’라고 말해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더니 아픈 곳은 없다고 답했다”며, “원래 인체가 완전한 좌우 대칭이 아닌데, 건강 염려증이 지나치다 보니 50년 의사생활 하면서 처음

회 활동의 위축에 따른 외로움, 우울, 불면 등은 쪽방촌 주민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와 같이 코로나19 감염률과 사망률이 비교적 낮은 국가도 우울증과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두 배나 늘었고, 미국에서는 코로나 유행 이후 정신 건강 원격 관리가 12배나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환자 감소

코로나19는 본원 진료에도 큰 차질을 가져다주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급등세를 보이면 보건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본원도 정부시책에 맞춰 진료를 축소했다. 환자들 역시 환자 발생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병원 방문을 자제했다. 정기적으로 본원을 찾던 환자들 중 일부는 진료 일정이 변경되자 혼란을 겪고 방문을 중단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서 발걸음을 줄였다.

2월 말~4월 말, 8월 말~10월 초에 걸쳐 일부 휴진과 주 3일(월, 수, 금요일) 낮진료만 하는 단축 진료를 시행하면

서 환자 수는 약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특히 외부 도움의 손길에 의존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현실 상황이 변화할 때 그에 발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는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무



본원 주변 300여 가구에 식품과 생필품 일부를 전달하는 쪽방나눔을 나가기에 앞서 물품을 점검하는 모습(왼쪽). 본원 약국팀장이 쪽방 주민에게 한방파스를 전달하며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듣는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 의무원장은 “언론 등에서 건강문제에 대해 너무 공포심을 불어넣은 탓도 있다”고 지적하고,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심리 방역’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임렬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봉사의(전 계요병원 원장)도 “코로나 19라는 전염병 자체에 대한 불안, 걱정, 또 사

료 식사를 제공하던 곳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식을 중단할 경우, 어떤 사람들은 알음알음으로 여전히 식사 주는 곳을 찾아 끼니를 때우지만, 삶의 의지가 약하거나 알콜 의존성이 강한 이들은 밥을 굶는 일이 흔하다.

본원 주변에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 ‘토마스의 집’과 광야교회는 현재 회당 300~400명 분의 식사(밥 말이 국밥 혹은 주먹밥)를 제공하고 있다. 점심과 저녁을 합하면 하





루에 약 1000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그런데 코로나19 환자가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난 8월 중순 이후 지자체의 요청으로 한 달 정도 급식을 중단하자 본원 환자도 함께 줄었다. 신 의무원장은 “노숙인이나 끼니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제일 중요한데 도시락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주지 말라고 하니 일부 환자들은 연고가 있는 곳이나 친지를 찾아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음악치료교실이 그리워요”

밥도 중요하지만 본원의 음악치료를 영화포럼에 참석하던 환자들은 하루 빨리 상황이 나아져 이 프로그램들이 정상 가동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함께 모여 소통하는 활동은 특히 사회성이 부족한 노숙인이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치유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원에서 이런 저런 치료를 받으며 음악치료교실 개근생이었던 환자 고인홍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요셉의원에 모여 노래 부르고 함께 하던 시절이 꿈만 같다”며, “교실을 운영해 오셨던 김군자 교수님이나 반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모두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본원 운영의 큰 축을 이



매년 12월에는 음악치료교실에서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해 노숙인, 쪽방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나 코로나 사태로 기약없는 방학이 계속되고 있다.

루는 봉사자도 크게 줄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본원에서도 봉사 오시라는 요청을 하기가 어렵고, 대학병원 등에 근무하는 봉사자들은 소속 직장에서 외부 진료나 지원 나가는 것을 금하는 경우가 잦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수의 직원들이 그동안 봉사자의 손을 빌리던 주방 일이며 청소까지 도맡아야 하는 형편이고, 다행히 현장체험을 나온 신학생들이 일부 진료 지원과 병원 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휴진이나 단축 진료 피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모색”

코로나 사태로 크고 작은 병원들이 다 어렵다 보니, 수술이 필요한 환자나 중증 환자를 큰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일도 다소 힘들어졌다. 신 의무원장은 “어떤 병원에서는 환자 돌볼 사람이 없으니 아예 환자를 보내지 말라는 곳도 있다”며,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큰 병원 몇 곳과 진료 협약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보라매병원 같은 공립병원에서는 지자체의 안전망기금을 활용해 최저 빈민층 환자들의 입원과 수술을 무료로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자격이 안되는 가난한 환자들은 추가로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본원 의사사업실 김재근 실장은 “앞으로 그런 추가 부담금은 본원에서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소액의 진료비나 검사비는 바로 지원하고, 고액의 수술비나 입원비는 본원 소위원회에서 협의해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본원 의사사업실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노숙인이나 쪽방촌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매일 동네를 순방하는 한편 어려운 환자를 직접 찾아가 면담을 하기도 한다. 아울러 한 달에 두 번씩 식품과 생활용품을 나눔하며 작은 위로를 건넨다.



본원에서는 앞으로 휴진이나 단축 진료는 가급적 피하고, 찾아가는 서비스와 다른 복지기관과의 연대 등을 통해 진료서비스 강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신 의무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대면이 어려워짐으로써 복지시스템이 상당 부분 무너진 상황에서 요셉의원이 환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휴진이나 단축 진료는 환자들한테 혼선을 빚을 수 있어 가급적 피하고, 아웃바운드와 아웃리치 등 찾아가는 서비스와 함께 타 복지기관과의 연대 지원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0~2020.11



##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코로나19 사태

필리핀 현지통신

장경근 | 필리핀 요셉의원 원장신부 |

## 나날이 늘어가는 급식소 아이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 경고가 나오고, 여러 도시들이 다시 봉쇄에 들어가고 있는 요즘, 필리핀은 의외로 조용하다. 기본적인 봉쇄 조치와 안전에 대한 경고는 계속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의식은 조금씩 느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아이들의 외출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하나 이들이 어떻게 집에서만 몇 개월을 지낼 수 있겠는가? 학교는 온라인 수업과 과제로 대체되고 있어, 거리를 돌아다니고 마을을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다. 전과 달라진 것은 모두들 마스크를 썼다는 점이다.



어린이용 급식을 받으러 급식소에 찾아온 부모들(사진 왼쪽). 예전 어린이들로 붐비던 때의 급식소 모습(사진 오른쪽).

완화된 조치로 거리와 시장은 활기를 되찾은 듯하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아닌 것 같다. 매일 운영하는 어린이 무료 급식소에 새로운 신청자들이 나날이 늘어만 가기 때문이다.

작년 이맘 때는 인원이 계속 줄어서 170명 정도 되었으나, 지금은 3개 급식소의 인원이 260명으로 늘어났고, 거의 한 명도 빠짐 없이 급식을 받으러 온다. 그만큼 빈민지역 사람들의 어려움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 물가도 많이 올라 급식소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졌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신청자가 있으면 무조건 다 받으라'고 각 급식소 담당 봉사자들과 직원들에게 자신 있게 말한다. 한국 여러 후원자들의 응원과 기도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 덕택에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후원자 여러분께 조용히 고마움을 전한다.

## 진료소, 9개월 만에 다시 문 열어



다시 진료를 재개하고 야외에 칸막이를 한 진료소를 마련했다.

지난 3월 이곳 필리핀 요셉의원 진료소는 비교적 빨리 조치를 취해 문을 닫게 되었다. 그때만 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필리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거의 경계심이 없었다. 아무리 마스크를 쓸 것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해도 잘 지켜지지 않았고, 따라서 혹시라도 감염자가 이곳에 진료를 받으러 오게 되면, 전염병 확산의 근거지가 될 것이 분명해 보였다.

진료 중단 8개월 만인 11월 첫째 주부터 진료소 문을 열었다.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좋아졌고, 또 야외에 마련한 진료소에 가림막을 설치해 사람들 간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재개하였다. 현재는 매주 금요일 50명의 성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 장학생들에게 계속적인 지원 유지

현재 필리핀은 모든 학생들의 학교 등교가 제한된 상태다. 학생들은 집에서 인터넷 온라인 수업과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들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학교에 통학을 하기 위한 비용은 들지 않지만,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한 비용과 과제 비용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채 부모의 생계를 돕는 학생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필리핀 요셉의원에서는 현재 등록된 46명의 장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부모들과 면담을 하고,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현재 인원 이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들이 있으면 찾아내서 새 장학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 복음 묵상

##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 장경근 안드레아

필리핀요셉의원 원장신부



태풍으로 집이 침수돼 지붕으로 대피한 필리핀 수해지역 사람들.

지난 몇 주 동안 큰 태풍이 두 개나 지나갔다. 마닐라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그로 인해 침수와 산사태 등 큰 피해가 있었다. 다행히 이곳 마닐라 북부지역은 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놀라운 것은 집안이 침수돼 지붕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침통해 하며 울상인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히려 인터뷰 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태풍 피해를 하도 많이 겪다 보니 초연해 진 듯하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자연 재해와 질병 창궐에 대해 어떤 전문가는 인간의 무분별한 남용에 대한 자연의 경고이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기방능’이라고 진단한다.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움이 인간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왔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초기에 사람들은 그에 대한 정보와 경각심 부족으로 대처를 잘 하지 못했다. 특히 외국의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외치며 마스크 쓰기를 거부했었다. 그러나 이젠 그렇지 않다. 자존심을 뒤로 내려놓고,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다. 자연스러움에 반항했을 때 겪게 되는 큰 혼란과 피해를 인식하고 그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서로 간의 왕래를 줄이는 것은 너무 불편하다. 어서 빨리 이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전과 같은 편리함과 자유로움을 누리길 바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은 인간의 반자연적인 행위에 반발해 나타나는 자연의 이런 ‘자연스러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경고한다. 듣기는 싫지만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 이야기다.

이왕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 안에서 심적으로라도 행복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방법을 신앙 안에서 찾는다면 더 더욱 좋다. 바오로 사도는 환란 속에서 기쁨을 말한다. 그는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지역 교우들에게 ‘자신이 주님 안에 있음으로 얼마나 기쁜지’를 표현한다. 그리고 교우들에게도 그 기쁨 안에 머물라고 초대한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필리피서 4장 1절)



##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philj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 + 2020년 9~10월 신규 후원회원 명단(총 12명)

♥ 고경민 ♥ 권오영 ♥ 기 부 ♥ 김명선 ♥ 김명현  
♥ 김용범 ♥ 김윤선 ♥ 나원균 신부 ♥ 배근희 ♥ 설육례  
♥ 송재민 ♥ 조민제

## + 2020년 9~10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코로나19로 진료 중단, 약 처방(346명)만 진행  
♥ 급식 10,356명

## + 개원 후 진료 및 급식통계 (2020년 10월 현재)

♥ 진료 80,625명 ♥ 급식 334,374명

✦ 미사  
안내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1:4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 쪽방촌 향기

## “보탬 되려고 왔다 기쁨과 행복 듬뿍 얻어갑니다”

한 달에 한 두 번이지만 여기서 만나는 환자분들에겐 대구 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단골 환자들과는 조금 다른 안타까움과 애정이 섞여 있어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40여 년 전 의과대학 입학 면접시험에서 담당 교수님이 ‘자네는 왜 의과대학을 지원했는가?’하신 질문이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이 세상에 뭔가 작은 보탬이라도 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여자가 전문직이 아니면 사회에서 계속 일하기가 꽤 힘들어 보여서 의사가 되면 언제 어디선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꼭 의사가 되고 싶다는 절실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의사의 길을 선택했고 나름의 보람도 느꼈습니다. 이후 수련의 생활과 결혼, 그리고 개원을 거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환자, 내 가족 챙기기에 급급한 생활 속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어릴 때부터 간직해왔던 꿈을 떠올렸고, 여기저기에서 대가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전 일이지만 아들의 가톨릭의대 학교행사에 참석했다가 선우경식 선생님과 요셉의원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던 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들들이 의사로 일하게 되고 나서 더욱 적극적으로 진료봉사 지원을 하게 되었고, 어느 날 요셉의원으로부터 목요일 진료 가능하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한 달에 한 두 번씩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영등포에서 내려 요셉의원을 찾아온 지가 어느덧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급식에 의존하는 당뇨 고혈압 환자들을 상담할 때 식이와 생활패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차츰 환자분들과 친해지면서 식사, 음주, 운동 등의 일상생활과 스트레스에 대해 편하게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두 번이지만 여기서 만나는 환자분들에겐 대구 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단골 환자들과는 조금 다른 안타까움과 애정이 섞여 있어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



현향숙

본원 내과봉사의

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또 여기서 만난 요셉 가족들과 여러 봉사자들이 환자들에 대해 한없이 따뜻한 배려와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급속히 번지던 지난 2월 어느 때처럼 요셉의원 진료를 하고 대구로 내려간 바로 다음 날,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내가 괜히 진료 가서 혹시라도 요셉의원 가족이나 환자들에게 걱정을 끼치거나 민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얼마나 가슴 졸였던지요.

그 당시 대구에선 매일 쏟아지는 발병자와 사망자 소식에, 심지어는 진단받은 뒤 입원 대기 상태에 있다 사망한 환자들의 소식에 망연자실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자원봉사에 나서 확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상태를 파악하고, 증상에 대한 처치를 조언하는 한편, 환자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해 전화상담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이래 119 응급차 소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 때처럼 슬프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전화봉사를 시작한 이후 입원 대기 중에 사망하는 환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진 않았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 사태는 다소 잠잠해졌습니다.

이곳 요셉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기를, 그리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돼 병원 진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기를 기도드립니다.

처음에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뭔가 보탬이 되려고 요셉의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충만한 요셉 가족들을 만나는 즐거움과 행복함을 듬뿍 얻을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 요셉의원소식



### 원로봉사자 고용복 교수 선종

본원 초창기 때부터  
심양면의 도움을 주었  
대의대 명예교수가 10  
가톨릭대의대를 나와  
과에서 수련한 고 박사  
의 권위자로 대한이식  
림중앙의료원 장기이식  
임했다. 본원 초대 원장  
의 가톨릭대의대 선배  
재학 시절 학생회 활동을 함께 했고, 해군 군의관 복무와 미국 유학 시절을 함께 보낸  
인연이 있다.



외과봉사의로 물  
던 고용복 가톨릭  
월 30일 선종했다.  
뉴욕대 의료원 외  
는 신장 이식 분야  
학회 이사장, 가톨릭  
센터 소장 등을 역  
인 선우 경식 박사  
로, 두 사람은 대학

선우 원장은 고 박사에 대해 "1년 365일을 환자만 생각하는 열정 어린 타고난 의  
사"로 칭송했고, 고 박사는 선우 원장을 "혈벙고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좋은 일만 하  
다 마지막엔 육신의 고통까지 감싸 안으며 떠났다"고 회고한 바 있다(요셉의원 소식  
지 104호 '쪽방촌 향기' 칼럼, 2019년 5월).

선우 원장 재임시 고 박사는 본원에서 수술을 하는 외과봉사의로, 배우자인 김영남  
여사는 사회복지 전문가로 부부가 함께 요셉의원의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헌신했다.

### 유방암 딛고 새 꿈 펼치는 외국인 환자

우리나라에 학생 비자로 입국했다 유방  
암 3기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던 아프리  
카 기니 출신 마카베 투레(27· 사진 가운데)  
가 진료를 마치고 난민 신청이 만료되는 12  
월 14일 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마카베  
가 절제술을 비롯해 방사선 치료와 호르몬  
치료 등을 모두 마치고까지에는 본원과 복지  
부의 외국인 의료지원 및 독지가들의 후원이



큰 힘이 됐다.

마카베는 14세 때 부모의 권유로 결혼한  
뒤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데다 자식마저

사망하자 이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혼을 하게 된 그는 남편의 위협  
을 피해 2018년 7월 우리 나라로 건너왔었다.  
지난해 6월 경 본원에 처음 내원했고, 6개월  
뒤 보라매병원에서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  
다. 영어를 할 줄 몰라 본원 치과의 나미 수녀  
가 수시로 동행해 통역을 해주었고, 사회사업  
실 민루이제 수녀는 수술 받은 마카베를 밤  
새워 간호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마카베의 사연은 지난 10월 11일 가톨릭평  
화신문의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란과 본원  
페이스북에 소개돼 이후 많은 성금이 답지했  
다. 10월 30일 본원을 방문해 진료비를 제외  
한 후원금 2700만원을 전달받은 그는 "도움  
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다"며, "귀한  
후원금을 생활기반 마련과 학비로 쓰겠다"고  
밝혔다.

### '목동의 집' 리모델링 10월 말 완료



본원에서 노숙인 쉼터로 운영하는 서울 양  
천구 '목동의 집'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 7월 1  
일부터 시작돼 지난 10월 말 완료됐다. 이번  
공사에서는 지하 1층, 지상 2층인 목동의 집  
에 지하 방 1개와 화장실 1개를 신설하고 ●화  
장실 4개 개축 ●사위실 1개 신축 ●낮은 가  
구와 장판, 방충망을 전부 교체하면서 도배도  
새로 했다. 9월 말 기본 공사를 마친 뒤 목동  
의 집을 관리하고 있는 홍정우 소장과 현장  
체험을 나온 신학생들이 그동안 수시로 현장  
에 들러 청소와 정비를 했다. 목동의 집은 수  
용 인원 총 9명으로, 올해 말부터 약간명의  
신규 입소자를 받을 예정이다. 사진은 화장실  
수리 전(사진 왼쪽)과 수리 후의 모습.



### 신일영 신경외과 봉사의 후원금 전달

본원에서 신경외과 진료 봉사를 하고 있는 신일영 교수(한림대 동탄성심병원)가 10월 25일 동탄성심병원 환자 김모 씨로부터 받은 감사금을 해당 환자의 이름으로 본원에 후원했다. 환자 김씨는 병이 전이된 상황에서 수술이 잘 돼 고맙다며 신 교수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었다. 본원에서 진료한 환자가 어려운 수술이 필요할 경우 친지 의사들에게 적극 '수술 선처'를 부탁하기도 하는 신 교수는 이번에 두 번째로 같은 후원을 했다.

### 의료진에게 향수 후원

향수나 커피, 향초 등 아로마 테라피 계통 제품을 제조 유통하는 아틀리에 헤아림(ATELIER HEALIM) 임지하 후원자가 100% 천연성분으로 만든 향수 한 박스를 의료진에게



게 전해달라며 보내왔다. 임 후원자는 동봉한 편지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진료하시는 요셉의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가장 필요한 분들이 의료진일 것 같아 정식 출시 전에 증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쪽방촌 356세대에 추석선물 전달

추석을 한 주 앞둔 지난 9월 25일 본원은 20여 명의 전 직원과 봉사자가 나서 서울 영등포동 쪽방촌 일대 356 가구에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가난한 이들에게 위안을 전하고자 마련한 선물 꾸러미에는 삼계탕과 송편, 참치캔, 사과, 계란과 두유, 치약 등 생필품과 함께 간편 바지 한 장도 함께 넣었다. 선물을 받은 한 주민은 "무료 진료를 받고 약도 무료로 타는데 이런 선물까지 가끔 건네주니 고맙기만 하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번 추석 선물은 매년 후원금을 전해오고 있는 상조회사 The-K 예다함의 후원금으로 마련했다.



### 환자 스토리

#### 류마티스 질환으로 일손 놓은 김현철 씨

#### “몸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원이 운영하는 '목동의 집'은 본원 환자이면서 기거할 곳 없는 사람들이 몇 개월 정도 머물며 자활을 준비하는 일종의 중간 쉼터다.

목동의 집에서 1년 갓 넘게 지내온 김현철 씨(58)도 조만간 퇴소해 LH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몸이 불편해 혼자서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다리는 통통 붓고 손은 수시로 오그라 들고 온몸이 모두 아파서 제대로 걷지를 못해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걸음은 느리지만 그래도 운동 삼아 가까운 곳에는 자주 다니려고 합니다.”

김씨가 몸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8년 전 경남 양산의 자동차 부품 도장업체에 다닐 때부터였다. 1986년 경부터 도장업체 일을 시작한 그는 10여 년 동안 직장을 몇 군데 옮겨다니며 같은 일을 했다. 김씨는 당시 무거운 물건들을 손으로 끌고 다니다 보니 무리를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한다.

도장업체를 그만두고 열 달 여 화물선을 탔던 그는 보험을 들어서 모아놓았던 돈을 사기당하는 '변'을 당하기도 했다. 게다가 세 살던 집이 헐리게 되자 내친 김에 서울쪽으로 올라왔다.

김씨는 부친의 친지 집과 여관 등을 전전하며 건설현장에서 4~5년 동안 단순 노동을 했다. 모래와 벽돌을 나르고 청소도 하는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러다 다시 가산디지털단지의 공동 숙소로 옮겨 식사는 하루 세끼를 매일 거르지 않고 주는 교회 급식으로 해결했다.

“숙소에서 밥 먹는 데까지 1km 정도를





걸어가는데 몸이 붓고 아파서 1시간이나 걸렸어요. 발이 부어서 250mm를 신던 신발을 나중에 265mm까지 늘렸죠.”

병원에 가봤더니 병명을 확실히 짚어내지 못했다. 부러지거나 다친 것은 아닌데 만성피로가 쌓여서 그런 것 같다는 정도였다. 그러다 몸이 아파 일을 못하게 되자 친지의 소개로 지난해 10월 25일 본원에 찾아와 상담을 거쳐 목동의 집에 입소하게 됐다. 본원 주선으로 보라매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판정을 받았다.

“목동의 집에 기거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요셉의원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먹다가 지금은 2,3주에 한

번씩 진료를 받고 있어요. 목동의 집 소장님이 큰 병원에도 데려가 주시고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요셉의원 가족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씨는 스스로가 참을성이 많다고 말했다. 아마 그 때문인지 몸이 아파도 꼭 참고 힘든 노동 일을 감내한 것 같다. 요즘에는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가 뻣뻣해 지는 것 같아 하루에 두 번 정도 동네를 한 바퀴씩 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그는 “별다른 계획이 있다기보다 몸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주택에 입주하면 혼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며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 후원의 손길

### 수강생들에게 후원 권유하는 학원장 최은희 씨

“‘동기 부여 후원 약속’으로 학교 성적도 올랐어요”

경기도 분당에서 조그만 학원을 운영하는 최은희 후원자(51)는 가족 네 명 모두가 나름의 후원처를 가지고 있는 ‘나눔 가족’이다. 최 후원자는 5년 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5년 약정으로 1억원 기부를 시작해 얼마 전 완료한 바 있다. 직장인인 남편은 장애인을 위해 몇 군데 후원을 하고 있고, 대학생과 중학생인 두 아들이 수 년째 본원에 기부금을 전하고 있다.

“1억 원 약정 기부는 제가 젊은 시절 받았던 도움을 되돌려주기 위한 일종의 품앗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입 재수 시절 입시 3개월을 앞두고 학원비가 떨어져 중도 포기하려고 할 때 선생님 한 분이 학원 등록을 도와 주셔서 대학에 갈 수 있었거든요. 20대 때부터 늘 품어왔던 꿈이라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최 원장은 기부 약정 목표를 이룬 뒤에야 선풍기를 틀던 가정에 처음으로 에어컨을 들였다. 1대1

형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10명의 수강생들에게 ‘선생님’의 목표 설정과 달성은 ‘하면 된다’는 동기 부여와 의지의 귀감이 됐다. 최 원장은 “수강생들에게 항상 목표를 정하라고 말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면 나도 행복해지고 능력도 커지니 이번에 성적이 오르면 기부를 해보자는 권유를 한다”고 밝혔다.

한 예로, 중학교 때 선행학습을 안 해서 고교 입학 후 전체 11% 안에 들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한 수강생은 이런 훈육 때문인지 1학기가 끝나면서 전교 1등을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최 원장은 “학생은 몇 명 안되지만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뤘을 때 기부를 한다는 문화가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학생들에게 기부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부도 공부와 마찬가지로 좋은 목표를 가지고 내 의지로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오래 전에 신문스크랩을 하면서 본원의 활동상을 읽고 아이들이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어머니의 후원 모습을 보고 큰 아들이 요셉의원 후원을 시작했고, 얼마 뒤 동생도 형의 뒤를 따랐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인 둘째 아



가족 네 명이 모두 후원에 동참하고 있는 최은희 원장의 ‘나눔 가족’.

들은 몇 년 전부터 집에서 가사도우미를 하기로 해 그릇 하나 닦으면 100원 씩 주고 있어요. 그렇게 번 아르바이트 비에서 매월 5000원 씩을 요셉의원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난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고액의 조의금을 따로 모아서 본원에 기부하고, 조의금을 보내준 이들에게 기부 사실을 알렸다.

최 원장은 기회가 되면 친지에게도 기부 권유를 한다. 그의 소개로 지난해부터 본원에 후원을 하고 있는 공봉에 후원자는 얼마 전 석 달에 한 번씩 네 명이 모이는 사회복

지 공동모금회 기부자 모임에서, '식사비와 찻값은 자신이 낼 테니 같은 액수를 모아서 요셉의원에 기부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랑이라기보다 생활 속에서 작게라도 함께 나누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사례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끈질긴 노력으로 1억원 기부 목표를 이뤘던 그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또다른 목표를 달성하면 60세 때 다시 한번 고액 기부에 ‘도전’하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다.



## 요셉의원 | 후원 및 기증현황

###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2020년 9월~10월)

♥ ANNA MOK ♥ 강기실 ♥ 강길남 ♥ 강상훈외 2명 ♥ 강순례 ♥ 강신구 ♥ 강용학 ♥ 강윤식 ♥ 강은영 ♥ 강혜원 ♥ 고은미 ♥ 광성민  
♥ 구인애 ♥ 구자룡 ♥ 국지애 ♥ 권소현 ♥ 권용남 ♥ 권지희 ♥ 권현진 ♥ 권효상 ♥ 기호성 ♥ 김경수 ♥ 김기홍 ♥ 김대진 ♥ 김덕규  
♥ 김도림 ♥ 김동현 ♥ 김두생 ♥ 김명수 ♥ 김문정 ♥ 김미나 ♥ 김미정 ♥ 김민 ♥ 김민규 ♥ 김민영 ♥ 김민정 ♥ 김민주 ♥ 김민지  
♥ 김범규 ♥ 김보미 ♥ 김선희 ♥ 김성일 ♥ 김세인 ♥ 김수윤 ♥ 김수현 ♥ 김아영 ♥ 김연웅 ♥ 김영수 ♥ 김영신 ♥ 김은정 ♥ 김이별하  
♥ 김자영 ♥ 김자희 ♥ 김정희 ♥ 김준한 ♥ 김준형 ♥ 김지영 ♥ 김지영 ♥ 김지환 ♥ 김진영 ♥ 김창준 ♥ 김태훈 ♥ 김한진 ♥ 김현수  
♥ 김현희 ♥ 김형빈 ♥ 김형승 ♥ 김혜빈 ♥ 김효준 ♥ 김흥년 ♥ 나선정 ♥ 남경연 ♥ 남경조 ♥ 남지홍 ♥ 노상미 ♥ 목미숙 ♥ 문명수  
♥ 문승훈 ♥ 문연지 ♥ 문진경 ♥ 문태식 ♥ 민경환 ♥ 민성욱 ♥ 박경영 ♥ 박광호 ♥ 박광희 ♥ 박근희 ♥ 박다혜 ♥ 박다혜 ♥ 박명식  
♥ 박미나 ♥ 박민진 ♥ 박상용 ♥ 박석봉 ♥ 박세영 ♥ 박송규 ♥ 박시우 ♥ 박정숙 ♥ 박종숙 ♥ 박주미 ♥ 박지신 ♥ 박지영 ♥ 박지영  
♥ 박진호 ♥ 박찬미 ♥ 박찬희 ♥ 박천웅 ♥ 박태건 ♥ 박하나 ♥ 박현진 ♥ 박형준 ♥ 배상진 ♥ 백보노사 ♥ 백영심 ♥ 백윤경 ♥ 변안나  
♥ 변재현 ♥ 변지혜 ♥ 서은경 ♥ 석진아 ♥ 선주규 ♥ 선지영 ♥ 설육례 ♥ 손소희 ♥ 손은채 ♥ 송나영 ♥ 송숙희 ♥ 송연지 ♥ 송정희  
♥ 송호영 ♥ 수산나 ♥ 시영철 ♥ 신경철 ♥ 신용주 ♥ 신유정 ♥ 신은희 ♥ 신정용 ♥ 신종찬 ♥ 신현 ♥ 심규홍 ♥ 심명섭 ♥ 심미영  
♥ 심효준 ♥ 안동빈 ♥ 안미화 ♥ 안성 ♥ 안은영 ♥ 안재진 ♥ 양승현 ♥ 양현지 ♥ 양화석 ♥ 어진봉 ♥ 엄성희 ♥ 엄세실 ♥ 오세윤  
♥ 오양삼 ♥ 오재균 ♥ 오혜진 ♥ 우철균 ♥ 원우식 ♥ 유승하 ♥ 유지연 ♥ 유지혜 ♥ 유채은 ♥ 육미란 ♥ 윤예영 ♥ 윤용섭 ♥ 윤주형  
♥ 윤진희 ♥ 이가영 ♥ 이강욱 ♥ 이경희 ♥ 이경희 모니카 ♥ 이금선 ♥ 이상현 ♥ 이선문 ♥ 이선영 ♥ 이선화 ♥ 이성준 ♥ 이세영 ♥ 이수미  
♥ 이아름 ♥ 이영남 ♥ 이영채 ♥ 이원구 ♥ 이윤정 ♥ 이은이 ♥ 이은지 ♥ 이인성 ♥ 이재영 ♥ 이재원 ♥ 이재혁 ♥ 이정설 ♥ 이정재  
♥ 이종태 ♥ 이지은 ♥ 이진영 ♥ 이진혜 ♥ 이찬솔 ♥ 이창현 ♥ 이하늘 ♥ 이하연 ♥ 이한나 ♥ 이현주 ♥ 이혜진 ♥ 이희선 ♥ 임은정  
♥ 임정현 · 임진우 ♥ 임채린 ♥ 장광민 ♥ 장이안 ♥ 장정환 ♥ 전경훈 ♥ 전봄 ♥ 전영남 ♥ 전영심 ♥ 전정숙 ♥ 전정현 ♥ 전혜성  
♥ 전해양 ♥ 정기하 ♥ 정다유 ♥ 정도경 ♥ 정미진 ♥ 정민복 ♥ 정수민 ♥ 정영미 ♥ 정재우 ♥ 정재욱 ♥ 정재훈 ♥ 정주태 ♥ 정태호  
♥ 정현정 ♥ 조문구 ♥ 조서진 ♥ 조성완 ♥ 조순자 ♥ 조재훈 ♥ 조재훈 ♥ 주연경 ♥ 진정희 ♥ 차영미 ♥ 채정식 ♥ 최미옥 ♥ 최미호  
♥ 최승연 ♥ 최아영 ♥ 최윤희 ♥ 최은희 ♥ 최지혜 ♥ 최진 ♥ 최현경 ♥ 최형철 ♥ 최효선 ♥ 최희선 ♥ 하늘꽃 ♥ 하민정  
♥ 하준영 ♥ 한수현 ♥ 한아름 ♥ 한윤제 ♥ 한재호 ♥ 한지우 ♥ 함지혜 ♥ 허광 ♥ 허은아 ♥ 허진희 ♥ 홍상현 ♥ 홍성옥







♥ 홍수경 ♥ 홍용욱 ♥ 홍학태 ♥ 황문영 ♥ 황아름 ♥ 황재원 ♥ 황창수

###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2020년 9월~10월)

♥ (주) 케이엔텍 ♥ (주)이엔티웍스 ♥ 강남캐스터넷 ♥ 대치3동성당  
♥ 스튜디오모랑지 ♥ 신현상사(박승균) ♥ 최린아 변호사사무소 ♥ 톤28

###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2020년 9월~10월)



♥ 가톨릭학원사제일동 : 과일 2상자 ♥ 김석우 : 꿀 1상자 ♥ 김은주 : 감 1상자  
♥ 아름다운공동체 : 쌀 150kg ♥ 영등포우체국장 : 배 5상자 ♥ 예수사랑공동체 : 빵  
10상자 ♥ 이경희모니카 : 꿀 10상자 ♥ 채미라 : 김치 1상자 ♥ 최명열 : 미역 1상자  
♥ 한국상하수도협회장 : 쌀 200kg

###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2020년 9월~10월)



♥ 김강호 : 옷 1상자 ♥ 김경란 : 옷 3상자 ♥ 김승언 : 양말 2상자 ♥ 김정희 : 옷 1상자  
♥ 김진 : 옷 2상자 ♥ 김태은 : 옷 1상자 ♥ 노미옥 : 옷 1상자 : 목 4 동 성 당 : 옷  
15상자 ♥ 박은경 : 옷 1상자 ♥ 박현수 : 옷 2상자 ♥ 송현정 : 옷 1상자 ♥ 우리양말  
: 양말 1상자 ♥ 유성열 : 옷 1상자 ♥ 이경희모니카 : 양말 500켤레 ♥ 이연수 : 옷 2상자  
♥ 이은숙 : 옷 1상자 ♥ 이지영 : 옷 1상자 ♥ 익명 : 옷 4상자 ♥ 중일동성당 : 옷 2상자  
♥ 천원교 : 옷 1상자 ♥ 최스테파니 : 옷 3상자 ♥ 최윤리 : 옷 1상자 ♥ 한문상 : 옷 1상자

### + 의료기·의약품을 보내주신 분(2020년 9월~10월)



♥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 아스피린 외 2종 ♥ 온누리약국복지회 : 파워기넥신 외  
11종 ♥ 제일한방 : 한방 파프 1종 ♥ 하나제약 : 노마로크 외 13종

###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2020년 9월~10월)



♥ 김미나 : 마스크 1상자 ♥ 김수영 : 마스크 1상자 ♥ 김순점 : 전기밥솥 1개 ♥ 메디엔젤  
: 손세정제 1상자 ♥ 여지연 : 마스크 1상자 ♥ 영등포우체국금융영업팀 : 세제 2상자  
♥ 영등포우체국장 : 마스크 1상자 ♥ 오세현 : 책 4상자 ♥ 웰킵스 : 마스크 5상자  
♥ 익명 : 마스크 1상자 ♥ 줄기세포 생명재단 : 마스크 1상자 ♥ 지엠에스코리아 : 물비누  
20상자 ♥ 진승도 : 생활용품 다수 ♥ 톤28 : 손세정제 2상자 ♥ 하마리아 : 마스크 1상자

###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 새로 나오신 분



- 의 사 : 윤상원(안과)  
정성근(치과)
- 간호사 : 권유림 김민서 김은희
- 약 사 : 장정인
- 일반봉사 : 김성희 김해민 이아연  
이진영 이하얀 정민주  
조미향

####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

- ♥ 까리파스 급식소
- ♥ 밤바
- ♥ 수선화의 집
- ♥ 안나의 집
- ♥ 안산 빈센트의원
- ♥ 요셉의집
- ♥ 인천품놀이터
- ♥ 정승혜
- ♥ 지오나학교
- ♥ 쪽방나눔(누계 800 가구)
- ♥ 토마스의 집
- ♥ 한울타리공동체



####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0년 9월	515명
2020년 10월	847명



개원 이후 총 진료 인원(2020년 10월 말 현재)

701,611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 요한의 첫째 서간 1, 20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코올 의존증 환자,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서울 요셉의원과 필리핀 요셉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0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요셉의원 후원 방법

###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http://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70-4688-3416)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70-4688-3416)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서울가톨릭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외환은행	111-13-04699-8	서울가톨릭요셉의원
KEB하나은행	193-890037-13505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josephclinic@daum.net](mailto:josephclinic@daum.net)



##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 식사나눔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1층 식당



###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1층 현관



### 목욕서비스

시간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장소 1층 목욕실



### 단주모임 (A.A 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 영화포럼

시간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1시 30분~4시  
장소 4층 도서관



###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4층 도서관



### 법률상담

시간 넷째 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1층 봉사자실



### 성경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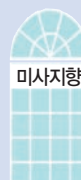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4층 휴게실

###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